

##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II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부제: 성경에는 위인이 없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 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매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개역, 사무엘하 11:1~5]

# 같

은 제목으로 여러 번 연이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정돈해 봅시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 기자가 자신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록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고 자기의 실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기록했으나 기록해 놓고 보니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람의 기록이라고 보기엔 도무지 왜 기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글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 분의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도 결코 미화하지 않았다는 점이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경에는 위인이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위인이 얼마나 많은데 위인이 없다니?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부로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뀌어질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위인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다고 하신다면 제가 양보를 하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은 사람이 만든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위인이라는 것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도무지 위인이라고 할 만한 자질이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갓은 고난을 겪은 후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인전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위인전 많이 사 주시지요? 왜 그러세요? 더구나 예전에는 한 권씩 팔았는데 요새는 아예 위인전도 한 질씩 파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것 제쳐두고 위인전을 읽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바라는 탓이지요. 위인전에는 어릴 때에 사고치고 말썽부린 이야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그것도 성인들을 염두에 둔 책에서는 가끔 고뇌하는 모습의 위인도 더러 보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인들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의 위인이라면 으레껏 이순신이었지만 한 번도 사고를 치거나 부모의 속을 썩인 적은 없더라구요.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본 이야기 같은데 이순신 장군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기는 늦게 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전쟁놀이를 하면서 장군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 빠져 부러졌지만 스스로 나뭇가지를 대고 묶어서 다시 말을 탔다고 하는데 전 그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나하곤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어린 시절도 얼마나 검소하고 착한 학생이었나를 구구절절이 기록하면서도 오줌을 싸거나 말썽을 부린 이야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위인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의 위대함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합쳐진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위인은 사람이 만든 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버이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어느 효부가 사석에서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병든 시부모를 지성으로 돌보았다고 표창을 받게 되었지만 진심으로 효도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남들

처럼 노인네를 갖다버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지 효부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아느냐? 이런 상 안 받고 효부 안 하겠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처지를 원망도 하고 형제를 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방송은 이런 아픔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훌륭한 점만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의 이런 기대가 실제와는 동떨어진 효부, 열녀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일종의 허위의식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나마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콜리앗과 싸운 이야기는 교회에 가 보지 않은 사람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맷돌을 휘두르며 콜리앗에게 달려가며 외친 그 말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사무엘상 17:45),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사무엘상 17:47)’**

이 놀라운 다윗의 모습을 저도 어릴 적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게 은혜를 준 게 아니고 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닦아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나는 결코 신앙인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가 아니고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 보지도 말라’는 속담이 더 생각나더군요. 학교에서 친구들 보는데 식사기도하는 것조차 당당하지 못한 판에 언감생심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구요? 자주 실수해서 예수님께 책망 듣고, 졸다가 야단맞는 베드로를 보고는 은혜를 받아도 다윗은 결코 제게 은혜로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서 보니 다윗이 더욱 감동적인 것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데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치진 않겠다는 자세는 아무나 함부로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배들의 기를 무참하게 꺾어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다윗에게 기죽지 않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왕궁으로 불러들여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라는 4절의 이 말씀은 원문에 따르면 ‘동침한 후 그녀는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다’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레 15:18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의식을 잘 지키는 셈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그들이 씻어야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의식적 정결에는 신경을 쓰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도둑질하기 위하여 차를 구입하고 영업을 잘 되도록 고사를 지내는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 후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 하고는 그 전황보고서를 보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있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는 이 말은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뜻이지만 너그러운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감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몰래 봅니까? 봤으면 뻘치 누군지 알아보기는 왜 알아보니까? 불러서 동침한 것, 남편을 집에 보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 것, 정신이 희미해지도록 술을 먹인 것, 충성스런 신하(들)를 죽게 한 것,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것... 잘못을 열거하기에 숨이 가쁠 지경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위대한 다윗의 신앙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깨끗이 무너져 내린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염치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왕이니까 그래도 봐줄 수 있습니까? 이런 잘못

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는 부끄러운 일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오빠가 동생을 추행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비록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징계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적이고 모범적이었던 다윗마저도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만 나쁜 사람이고 밋세바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밋세바의 잘못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집에 가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토론을 해 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여자가 왜 눈에 뜨이는 곳에서 목욕을 합니까? 고등학생들 데리고 공부하다가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보라고 했더니 어떤 남학생이 당당하게 그래요. “이럴 때 여기서 안 쳐다볼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참으로 용감한 남학생이었는데 다들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남자들의 속성이 그렇다는 걸 알고 주의를 좀 해야지요. 또, 왕이 부른다고 덜렁 갑니까? 갔더라도 그렇게 쉽게 동침하느냔 말입니다. 목숨걸고 정조를 지킨 여자가 어디 한 둘입니까? 남편이 죽자 쉽게 다윗에게 시집을 가 버린 점이 아무래도 잘못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밋세바는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의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모독해도 괜찮은 겁니까?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모든 왕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왕중왕입니다. 이런 분들의 잘못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서 흠집을 내도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만큼 위대한 인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있는 사람의 잘못은 적당히 덮어주고 조금이라도 약하다 싶으면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과 왕비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도 밋세바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왕중왕이라도 아무 거리낌없이 잘못을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짓밟고 까발린다는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그냥 흔히 있는 일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서전에는 등장하지 않을 이야기도 모조리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흠을 찾아보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나빠서 남의 허물을 잘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성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유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인들의 허물을 어떻게 잘도 봅니까? 제 탓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중 일등병 시절에 마산통합병원으로 후송을 갔는데 그 때만 해도 대학생이 그리 흔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대학 나왔으니 저녁에 ‘명상의 시간’을 좀 인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군 병원의 병실이라서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학교 교실 두 개 정도의 크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계급입니다. 군대라는 곳은 인격도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급이 낮으면 소위 말빨이 서지 않는 곳이 군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계급이 낮으면 바보입니다. 일등병 시절이었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저보다 낮은 사람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꼴따구(줄병)가 명상의 시간이랍시고 좋은 얘기 하다 보면 틀림없이 한 쪽에서 ‘집어 치워라’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고 분위기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온갖 폄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격을 피해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될 만한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 보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이 놈의 고참들을 어떻게 요리를 하나? 궁리를 하다 보니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사람이란 게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남의 좋은 얘기는 잘 안 들어도 험뜯는 이야기는 다 재미있어 하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남편이나 시댁 흉을 한참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정상처럼 보이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것이지 결코 정상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 홍보지 말고 존경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속이 편치 못하다구요? 순교하겠다는 자세로 해 보세요. 그래서 위장병이 들고, 죽게 되면 그것도 순

교입니다. 남편이 잘못한다고 같이 잘못할 수는 없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하려는 각오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도무지 사랑할 건덕지가 없는 아내를 사랑하려면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옆으로 섰군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남몰래 훑쳐본 왕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안 쳐다 보는 고참이 없더라구요. 저녁마다 몇 십명이 되는 고참들을 침상에 정렬시켜 놓고 남의 흥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시선을 끌어놓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해 나갔죠. 정말 고마운 것은 그런 이야기의 재료를 찾으니까 성경에는 무한정 있더군요.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밑천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히지 않을 만큼 자료가 풍부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나빠서 단점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찾은 것입니다. 굳이 작전이 아니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들여다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좋게만 보면 주근깨도 매력으로 보이는 법이지만 성경은 일단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의미로만 해석하려는 것도 편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눈꼽만큼도 미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 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행적이 남아 있는 인물이라면 흠을 잡기가 아주 쉽지만 많은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흠이 없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털어도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걸 퀴즈문제로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입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치 마당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언제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살벌한 곳입니다. 더구나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으로서 정적들에게 도무지 흠이 잡히지 않았을 정도였다면 정말 완벽한 인물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그러나 극히 드문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을 제외하면 진정한 모범생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여차하면 아내를 버리고 혼자라도 살아 남겠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고 한번은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웃음)이라고 하여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런 불신앙(?)의 사람을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만큼 위대한 신앙인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그가 위대한 인물로 변해가는 과정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앞 부분을 매정한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친히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못 한다고 버티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 장면의 어디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 같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짚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라는 위대한 길을 걷게 된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라든가 아니면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하게 불구경을 갔던 것입니다. 산에 불이 붙었다면 더 크게 번지든지 아니면 다 타고 꺼지든지 해야 하는데 계속 타는 것이 이상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너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바로가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은혜를 입도록 하겠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면에 모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고 증거를 대라고 할텐데요? 말에 능치 못해서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얼마나 말이 많고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세의 구구한 변명과 도무지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에서 5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신대원에 입학한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만 험기왕성하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결정타는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이노무 자식이...” 그래서 맞아죽지 않으려고 떠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사명을 받았을까요? 위대한 사명을 받고 장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을 보러하니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동족을 구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웠을까요?

자, 드디어 모세는 바로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제대로 못 하고 죽을 쑤고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실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기 전에 우리를 보내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바로에게 가서 항의하는 패장들이 더 용기가 있어보입니다. 첫 시도에 낙담한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성 질은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것 보세 요 내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교하고, 도망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끝없이 달래고, 야단치고, 심지어 매질까지 하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을 본 받으라고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인이라는 사람들이 머 이래요?” 하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뒷감당 못합니다. 이삭이나 야곱은 별로 본받을 것도 없지요? 성경이 인간의 기록이라고 본다면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왜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번듯한 이야기도 없어요. 장가가는 일만 해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주었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종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까지 기다리다가 맞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아비멜렉에게서 밀려나올 때 우물을 빼앗긴 사건을 두고 어떤 분은 이삭이 참으로 온화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당시의 우물은 재산 1호에 해당하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재산 1호를 강패들에게 3번씩이나 순순히 내어주면서 피하기만 한다면 남편을 온화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온화하다고 대답한 그 분이 ‘병신...’이라고 또 대답을 하시더군요.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해서 재미는 있지만 무엇을 본받아야 할 지 애매합니다. 본받기보다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신약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베드로의 실수는 워낙 많으니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바울도 나쁘게 보면 성질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바울이 있도록 그를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처음에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도 바나바요 고향에 묻혀 있는 그를 안디옥에 데려와서 할 일을 맡긴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그 바울이 바나바를 능가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크더니 드디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뜻이 맞지 않는다 해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온화하기 이를 데 없는 바나바가 이 다툼으로 몹시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만한 일로 위대한 사도들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이라고 너무 잘 봐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모두가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평범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었을까요?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어두웠던 사람들의 삶이 밝아졌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인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졌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 때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추켜

세우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인간을 모범적인 인간으로 묘사하고 그를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수학을 열심히, 그것도 과외공부까지 하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외로 수영과 헬스를 배우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배우시지 않으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과외공부 하듯이 하시면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그 속에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